

## 종교개혁과 신앙교육

박상봉 교수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역사신학)

### 서론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교회가 분리된 이래로 종교개혁자들은 당시 여러 대내외적인 상황들과 관련하여 개신교의 독립성을 담보받기 위해서 사도적인 가르침에 근거한 정통신앙을 유럽 교회 안에 이식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겼다. 이 사명을 위해서 참된 경건을 박해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떠나서 본래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였다.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교회의 토대와 객관적인 실체의 단일성을 보존하고, 이러한 믿음에 충실하기 위해서 더 이상 순수한 교리에 서 있지 않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하는 정당한 것이었다.<sup>1)</sup> 그래서 최악이 거하고 있는 전체 교회에서 일부가 부패와 오염을 막기 위해 분리하는 경우는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은 종교개혁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은 개혁된 교회의 독립적인 안정과 지속적 보존을 위해서 모든 계층과 연령대의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들이 필요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불만을 가진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동시에 각 개인의 종교적 자유와 상관없이 ‘그의 지역, 그의 종교(cuius regio, eius religio)’의 원칙 아래 놓여 있는 정치적 결정에 따라서 새로운 신앙고백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평범한 사람들<sup>2)</sup>의 종교개혁에 대한 지지와 충성도는 개혁된 교회의 존립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 효과적인 수단들은 대표적으로 설교, 문헌, 신앙(교리)교육 등을 떠올릴 수 있다.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신앙교육은 오늘날처럼 목회와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오히려 목회의 한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한 영혼을 돌보는 것과 관련된 목사의 ‘가르치는 사역’으로써 신앙교육이 강조되었던 것이다.<sup>3)</sup> 목사의 가르치는 직무는 하나님의

1) 에미디오 캄피, 스위스 종교개혁: 쾰리글리·베르밀리·불링거, 김병훈 외 4명 공역, 합신대학원출판부(2016), 29-36.

2) 박상봉, 취리히 교회와 신앙교육, 『노르마 노르마타』, 김병훈 편집, 합동대학원출판부(2015), 116. 참고로, ‘cuius regio, eius religio’의 원칙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은 그 지역의 영주나 의회에 의해 결정된 종교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원칙은 공식적으로 1555년 아우그스부르크 종교평화협정(Augsburger Religionsfrieden)에 의해서 공식화되었다. 물론, 이 원칙의 적용은 이미 종교개혁이 시작된 시점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Cf. Theologische Realenzyklopaedie, hg. von Gerhard Mueller u.a., Bd. II, Berlin·New York 1976-2004, 644.)

3) Martini Bucer Opera Latina (BOL), Vol. VX, Paris 1955, De Regno Christi, 54, 58.

백성들을 온전케 하는 것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했다. 신자들을 ‘가장 훌륭한 신앙인’으로 길러내는데 있어서 믿는 것과 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은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었던 것이다.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을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적인 삶을 살도록 설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종교개혁 시대에 교리를 가르치는 신앙교육은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신앙의 도리를 알려주어 스스로 구원에 관한 고백과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당연히, 어린 아이 때부터 체계적인 신앙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미 장성한 성인들도 신앙교육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앙에서 개신교의 신앙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신앙교육을 당시 시대와 공간에서만 국한시켜 시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앞으로 올 시대와 공간 속에서도 영속적으로 바른 신앙과 성숙한 삶을 드러내는 원리로 작동하도록 하는 안목을 가지고 실천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교육에 대한 관심은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한 좌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1. 종교개혁 사상을 전파하는 수단들

종교개혁은 성경적으로 개혁된 교회와 신학의 갱신이자 실현이다.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신앙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며, 그 변화는 개인, 가정, 교회,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사실, 이러한 실천적 결과가 없다고 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개혁된 교회와 신학이 유럽에 뿌리는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미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설교, 문헌, 신앙교육 같은 수단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성경의 바른 해석을 통해서 개혁된 신앙의 정체성을 갖도록 해주었던 설교를 잊지 않아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인 성경은 단순히 지식의 책으로만 인식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써 교회에서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설교자에 의해서 선포되어야 하고, 신자들은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 이해되었다. 그래서 취리히 종교개혁자였던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는 《제 2 스위스 신조》를 특별한 문서로 주목하도록 만들었던 유명한 고백을 표명했다: “우리는 스스로 설교된 말씀을 주목해야 하며, 그것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주목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 설교자가 못된 악인이며 또 죄인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선하기 때문이다.”<sup>4)</sup> 이 고백은 설교를 하

4) Heinrich Bullinger, Das Zweite Helvetische Bekenntnis, Ins Deutsche uebertragen von Walter Hildebrandt und Rudolf Zimmermann mit einer Darstellung von Entstehung und Geltung sowie einem Namen-Verzeichnis, 5. Aufl, Zuerich 1998, 18: “Und auch jetzt müssen wir auf das Wort selber achten, das gepredigt wird, und nicht auf den verkündigenden Diener: ja, wenn dieser sogar ein arger Bösewicht und Sünder wäre, so bleibt nichtsdestoweniger das Wort Gottes wahr und gut.”

는 목회자의 인격이나 행실에서 사람을 실망시킬 수 있는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거나 드러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무시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설교자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더욱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바르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도한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선포하는 것과 신자들이 그 선포된 말씀이 바르다는 것을 분별하여 듣는 것은 성령의 조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전제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영감된 책으로, 그 성령께서 교회와 개인에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된 것이다.<sup>5)</sup> 중생된 인간의 상태에 대한 정직한 이해 속에서 설교자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고려된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과 듣고 분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성령의 내적인 조명(interna illuminatione)’과 묶여 있다는 사실이 강조된 것이다.<sup>6)</sup> 이러한 인식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영감이 성경이 인간에게 주어진 목적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참되다는 사실 안에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과 관련하여 구원의 방도를 담고 있다는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깊은 곳에 간직되어야만 하는 보물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서 읽혀지고, 이단들을 경계하여 체계적인 교리로 정리되어야 하며, 설교자에 의해서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당연히,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인 설교를 언어적 전달로만 인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신자의 마음에 새기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 내며, 그 결과로 그분과 연합을 이루도록 한다고 이해되었다.<sup>7)</sup> 그렇다고 해도 설교는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는 절대적인 수단은 아니다. 한 가지 좋은 수단이다. 즉, 하나님이 각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 선택하신 한 가지 수단으로써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설교의 수단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유용할 것이다. 이때문에 설교는 광대짓이나 출썩대며 회중에게 재미를 주는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종교개혁자들은 설교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선포하도록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음으로,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과 함께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성경주석, 종교개혁 사상의 기본적 해설, 공교회의 일치와 연속성을 위한 공적인 신앙고백, 성인들과 어린이들의 기초적 교리지식을 위한 신앙교육 등과 관련된 저술들을 출판했다. 의심의 여지없이, 종교개혁은 인쇄 산업이 이제 막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던 시기에 발생했다. 종교개혁 사상이 전파되는데 인쇄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5) 칼 R. 트루만, 종교개혁의 유산, 조영천 역, 개혁주의신학사(2013), 107.

6) Das Zweite Helvetische Bekenntnis, 18: “Wir geben allerdings zu, Gott könne Menschen auch ohne die äußere Verkündigung erleuchten, wann und welche er wolle: das liegt in seiner Allmacht. Wir reden aber von der gewöhnlichen Art, wie die Menschen unterwiesen werden müssen, wie sie uns durch Befehl und Beispiel von Gott überliefert ist.”

7) 트루만, 종교개혁의 유산, 112.

하면 종교개혁의 유럽 전역에 안착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sup>8)</sup> 종교개혁자들의 문헌적 유산은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이 확산되고, 신학적인 동일성이 확보되며 그리고 개혁된 교회의 안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유익을 주었다. 다양한 인적교류 옆에서 국가들 사이에 언어적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어디에서든 별다른 어려움 없이 국제 공용어인 라틴어나 번역된 자국어 저술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혹은 비밀리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종교개혁 사상을 담고 있는 저술들은 유럽의 국경을 넘나들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분명한 개혁의 길을 제시한 것이 사실이다. 이 현상은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유럽의 모든 지역들에서 새로운 변화의 공론화에 대한 중요한 장을 마련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인 진술에 근거한 교리의 동질성과 교회의 일치를 폭넓게 확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sup>9)</sup>

끝으로, 유럽 안에서 종교개혁 사상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중요한 수단은 신앙교육이 속해 있다. 물론, 이 교리교육은 종교개혁 때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로부터 계승되어 온 것을 다시 본래의 의도대로 회복한 것이다. 특징적으로, 종교개혁 세대를 위한 교리교육은 믿음과 삶(Glaube und Leben)이 신앙지식과 경건(Glaubenwissen und Frömmigkeit)으로부터 결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졌다. 종교개혁을 통해 세워진 개혁된 교회에 속한 사람을 양육하여 새로운 신앙과 진리로 무장하도록 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속에서 교회, 이웃 그리고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자들은 교리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목적을 지향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삶을 사는 성숙한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신실한 신자로 길러내는 것이었다. 더욱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공동체, 즉 국가와 이웃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기독교 시민’으로 길러내는 것도 매우 중요했다.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적 의, 성실, 정절, 윤리 등에 대한 덕성들을 가르침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존재가 되게 한 것이다. 종교개혁 당시 기독교 시민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았다. 한 개신교 국가에 속해 깊은 신앙지식과 십계명의 가르침에 근거한 윤리적 소양을 가진 신자를 의미했다.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국가들이 여러 방면에서 안정되게 발전하는 데는 이렇게 잘 교육된 시민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 신자가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이 신앙교육을 통해 의식 있는 ‘기독교 시민’으로 길러내는 것과 관련하여 한 실례로 취리히 교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취리히 교회에서 쾰빙글리가 종교개혁의 기치(旗幟)를 내걸었을 때, 그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는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한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로마 카톨릭

8) 트루만, 종교개혁의 유산, 97.

9) Bern Möller, Flugschriften der Reformationszeit, *Theologische Realenzyklopaedie*, hg. Von Gerhard Müller u.a., Bd. II, Berlin New York 1976-2004, 240f.

교회와 관련된 미신과 신앙적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정돈시키며, 하나님의 위대한 존엄 앞에서 합당치 않는 모든 거짓들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을 일깨워서 동일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의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관심은 단순히 종교개혁 시대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즉 성경만이 교회의 무오하고 유일한 ‘신앙의 규범(regula fidei)’<sup>10)</sup>과 충돌하지 않는 초대교회로부터 계승되어 온 고대 신조들, 합법적인 공의회에 안에서 결정된 교리들 그리고 교부들의 저술들의 가르침에 속해 있는 것이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모든 전통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과 일치할 이루지 못하는 내용을 거부했다는 것이 기억되어야 한다. 쾰빙글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성령에 의해서 단순히 전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자 안에 머무는 것이며, 그 결과로 그분을 본받는 삶의 원천이 된다.<sup>11)</sup> 칭의와 성화를 긴밀하게 연결시킨 것이다. 구체적으로, 칭의는 죄인이 성령에 의해서 허락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으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 결과로 죄인은 내면적으로 도덕적 변화를 경험하며 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당연히, 쾰빙글리가 말하는 성화의 삶은 단순히 윤리적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칭의를 통해서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한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율법(도덕법)을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무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12)</sup>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쾰빙글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성화의 삶은 개인적인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신자가 살아가고 있는 세속 사회의 영역에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쾰빙글리가 자신이 죽은 해인 1531년에 쓴 예레미야 주석에서 표명한 내용이 이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다: “기독교인은 신실하고 선한 시민과 결코 다르지 않다. 또한 기독교인의 도시는 기독교의 교회와 결코 다르지 않다.”<sup>13)</sup> 결정적으로, 쾰빙글리는 이 목적을 이루는데 있어서 교리교육을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한 것이다. 기독교 국가(Respublica Christiana)에서 성숙한 신자를 길러내는 것과 의식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길 원했다.

정리하면, 종교개혁 사상은 각 사람의 경건을 변화시키고, 개혁된 교회를 등장시

10) 캄피, 스위스 종교개혁: 쾰빙글리·베르밀리·불링거, 16p.

11) 캄피, 스위스 종교개혁: 쾰빙글리·베르밀리·불링거, 25.

12) Huldrych Zwingli, An Exposition of the Faith, in: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 Zwingli and Bullinger*, The Westminster Press (1953), 270.

13) Huldrych Zwingli, Complanationis Jeremiae (1531), H. Zwinglii Opera 14: 424.19-22: “... Christianum hominem nihil aliud esse quam fidelem ac bonum civem, urbem Christianam nihil quam ecclesiam Christianam esse.” (원본: Ulrich Zwingli, Complanationis Jeremiae Prophetiae foetura prima, Tiguri 1531.)

켰으며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이상을 그려냈다. 이때 설교, 저술들 그리고 신앙교육은 개인의 의식과 윤리, 교회의 신앙생활 그리고 사회 전반의 외적인 구조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었다. 특별히, 신앙교육은 설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읽지 않도록 하며 그리고 체계화된 신앙지식을 갖게 하여 생각, 경건(윤리) 그리고 시민적인 삶을 위한 선명한 지표를 제공한 것이다.<sup>14)</sup>

## 2.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교육 역할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적 가르침, 교부들의 과오, 종교회의의 오류, 사람의 전통 등을 ‘오직 성경(sola scriptura)’에 비추어서 비판하거나 개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 중세 시대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교황이나 교회의 결정과 관련된 인간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경 해석에 있어서 원칙이 없는 자의적인 판단을 앞세웠다. 성경이 가르치는 객관적인 진리보다는 황제의 권력을 넘어서 이 지상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교황주의적인 교회 체제를 위한 전통을 견고히 세우려 한 의도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러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개혁을 위해 필요한 신학적이고 교회적인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직시했다. 비(非)성경적인 구원, 미신적인 성례, 계급화된 교회의 체계 등과 관련된 거짓과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 초대교회의 공동 신조들, 교부들의 문헌들, 중세의 건전한 신학자들의 글들, 르네상스와 함께 등장했던 성경인문주의자들의 가르침들을 연구한 것이다.<sup>15)</sup>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시대의 신앙적인 통일성을 갖게 하는 ‘정통 교리’를 회복하고 체계화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이 정통 교리는 전체 성경(tota scriptura)에 근거한 바른 해석의 기준과 관련된 것으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불링거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사도들이 서로 모순된 것들을 가르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도적인 교부들도 사도들과 반대되는 것들을 제시하지 않았다. 분명히, 사도들이 언어를 통하여 자신들의 글들과 모순된 것을 전달했다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적인 주장이다.*”<sup>16)</sup> 사도들과 그 이후의 세대들 사이에 분명한 연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이 연속성은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에 의한 산물이 아니다. 불링거는 바울의 입장(고후 12:18)을 존중하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제시했다.<sup>17)</sup> 우리는 이 연속성을 ‘사도적 가르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교회-교리사적 맥락에서는 모든

14) 박상봉, 취리히 교회와 신앙교육, 141p.

15) 빌렘 판 아셀트 & 에프 데커, 종교개혁과 스콜라주의, 한병수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4), 38-40.

16) Das Zweite Helvetische Bekenntnis, 22: “So wie die Apostel nichts einander Widersprechendes gelehrt haben, so haben auch die apostolischen Väter nichts den Aposteln Entgegengesetztes weitergegeben. Es wäre doch wahrlich gottlos zu behaupten, die Apostel hätten durch das mündliche Wort ihren Schriften Widersprechendes überliefert.”

17) Das Zweite Helvetische Bekenntnis, 22: “Anderswo bezeugt er weiter, dass er und seine Schüler, das heißt apostolische Männer, denselben Weg gehen und gleicherweise im selben Geiste alles tun (2.Kor. 12,18).”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공유되었던 공동의 신앙유산으로서 ‘정통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종교개혁 때 이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옳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다. 의심의 여지없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도적 가르침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거짓된 교리, 주장, 결정, 전통을 비판하면서 바른 성경해석의 기준을 삼은 것이다. 교회사 속에서 발생한 모든 가르침과 사건들을 분별할 때 무엇이 참되고, 무엇을 따라야 하며,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원리로써 작용했다. 그리고 ‘사도적 가르침’은 깊은 근저에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이 계시하신 의도에 따라서 진술된 교리’라는 이해를 담고 있다. 불링거의 다음과 같은 표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경 그 자체로부터 얻어진 정통적이고 원리적인 해석만을 인정한다: 성경의 각 권들이 기록된 의도에 따라서, 성경의 각 권들의 관계성(통일성)을 고려하여, 비슷한 구절과 비슷하지 않는 구절 그리고 반복적인 구절과 뜻이 명백한 구절과 비교하면서 해석하는 것이다. 그 해석은 신앙과 삶의 규범에 일치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에 기여한다.”<sup>18)</sup> 이 때문에 사도적 가르침은 시간을 초월하여 저 멀리 구약 선지자들의 교훈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우리에게까지 직접적으로 뻗어 있는 것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된 개혁된 교회의 가장 우선된 임무는 두 교회들 사이의 신학적 경계선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었다.<sup>19)</sup> 물론,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는 엄밀히 말하면 개혁된 교회가 전혀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다. 거짓된 교회를 개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개신교가 교황주의 교회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 근거한 정통신앙을 회복했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며, 더욱이 교회-교리사적으로 검증된 정통교회임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이 개혁을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설교를 하고, 저술들을 집필하는 것과 함께 교리를 가르치는 신앙교육에 절대적인 관심을 가졌다. 교회 분열과 함께 새롭게 개종된 신자들에게 형성되어야 할 신앙고백의 전환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교리교육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신앙교육이 없었거나 불규칙적이고 체계가 없는 교리에 대한 가르침이 이루어졌다면 개혁된 신앙을 받아들이거나 구원의 확신을 위한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력은 매우 미미했을 것이다.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교육은 개혁된 교회를 참된 교리(vera doctrina) 안에서

18) Das Zweite Helvetische Bekenntnis, 20: “Vielmehr anerkennen wir nur das als recht gläubige und ursprüngliche Auslegung der Schriften, was aus ihnen selbst gewonnen ist – durch Prüfung aus dem Sinn der Ursprache, in der sie geschrieben sind, und in Berücksichtigung des Zusammenhanges, ferner durch den Vergleich mit ähnlichen und unähnlichen, besonders aber mit weiteren und klareren Stellen. Das stimmt mit der Regel des Glaubens und der Liebe überein und trägt vor allem zu Gottes Ehre und zum Heil der Menschen bei.”

19) Artikel zur Ordnung der Kirche und des Gottesdienstes in Genf, dem Rat vorgelegt von den Predigern (1537), in: *Calvin – Studienausgabe*, Bd.1.1, Hg. Eberhard Busch u.a., Neukirchen-Vluyn 1994) (이하 Artikel 1537), 125.

타락하거나 부패할 수 없도록 경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동시대의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 체계적으로 전수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sup>20)</sup> 특별히, 이와 관련하여 칼빈이 1537년 처음 제네바 교회의 신앙 정체성과 방향성에 대한 기초를 제시한 《설교자로부터 시의회에 제안된 제네바 안에서 시행되어야 할 교회와 예배의 규범에 관한 논문》<sup>21)</sup>에서 밝힌 언급이 주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국민이 순수한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어린이들은 믿음에 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리교육을 받은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 복음의 가르침이 망각되지 않고, 오히려 그 가르침이 자세히 보존되고 그리고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전수되어야 한다.”<sup>22)</sup>

종교개혁 시대에 신앙교육은 전체 교회의 관심사로 매우 규칙적으로 이루어졌다. 토요일이나 주일에 정기적인 교리교육을 위한 예배모임이 있었다.<sup>23)</sup> 이 예배에 참석한 아이들은 교회의 교사로부터 믿음의 내용(신앙교육서 해설)을 배웠다. 주일 저녁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예배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질문했다. 그 밖에 아이들은 주중에 학교에서도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부모들은 주중에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했다.<sup>24)</sup> 이렇게 볼 때,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된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신앙교육서를 가지고 교회, 가정 그리고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받은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신앙교육을 통해서 세대와 세대 사이의 신앙의 연속성에 대해서 생각했다. 학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구별 역시도 예방하길 원했다. 그리고 신앙교육은 교회들 사이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 사이의 신앙적 일체성 역시도 제공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새롭게 개종한 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있을 경우에 신앙교육을 통해서 기존 신자들과 신앙일치를 갖도록 안내한 것이다. 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확정 시켜주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성도들을 한 신앙정신으로 묶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 신앙교육은 모든 신자들의 신앙일치와 개별 교회들이 한 교회로 묶여 있다는 공교회성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 Reinhold Hedtker, Erziehung durch die Kirche bei Calvin: Der Unterweisungs- und Erziehungsauftrag der Kirche und seine anthropologischen und theologischen Grundlagen, paedagogische Forschungen, hg. vom Comenius-Institut (Nr. 39), Heidelberg 1996, 92.

21) 원제목: Jean Calvin, Articles concernant l'organisation de l'église et du culte à Genève, proposés au conseil par les ministres (1537).

22) Artikel 1537, 115: “Um das Volk in der reinen Lehre zu erhalten, ist es ... dringend erforderlich, um nicht zu sagen notwendig, die Kinder von klein auf so zu unterrichten, dass sie Rechenschaft ueber den Glauben ablegen koennen, damit die Lehre des Evangeliums nicht in Vergessenheit geraet, sondern ihr Inhalt sorgfaeltig bewahrt und von Hand zu Hand und vom Vater auf den Sohn weitergegeben wird.”

23) 일반적으로 종교개혁 시대의 교리교육 예배는 토요일이나 주일 오후에 정기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취리히 교회는 토요일과 주일 오후에 교리교육 예배가 드려졌다. 제네바 시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교리교육 예배는 매주일 오후 12시에 행해졌다. 그리고 팔츠(하이델베르크) 교회도 매주일 오후에 교리교육 예배가 진행되었다.

24) Bullinger, Ehestand, 313.



### 3. 종교개혁 시대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신앙교육서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관심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개신교로 전환된 신자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어린 세대를 위한 교육에 더욱 실제적인 관심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당시 사람들의 의식 속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된 신앙지식을 완전히 극복시키는 것, 개혁된 신앙의 내용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 이 신앙정신 위에서 새롭게 세워진 개혁된 교회를 유지·발전키는 것 등에 대한 시대적 물음들의 답변으로써 신앙교육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신앙교육의 가시적인 실효성을 끌어내기 위해 신앙교육서(Katechismus)를 작성하는 것에도 큰 열심을 보였다. 칼빈은 제네바 교회의 어린이 신앙교육서와 관련하여 이렇게 밝히고 있다: “우리는 지금 한 가지 대책으로써 모든 어린이들이 배워야 할 짧고 이해하기 쉬운 기독교 신앙교육서를 제안한다. 그 다음으로 한 해의 정해진 시간에 어린이들은 질문과 시험을 받고, 그것에 대해 설명(고백)을 하기 위해 목회자들 앞으로 나오는데, 그들이 충분히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까지 각 개인의 능력이 측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신들은 부모들에게 수고와 열심을 다해서 그들의 자녀들이 그 신앙교육서를 열심히 배우며 그리고 규칙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목회자들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을 명령해야 한다.”<sup>25)</sup>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의 교회를 위해서 다양한 신앙교육서들을 집필했다. 이 때문에 신앙교육서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발생한 개혁된 교리를 담아낸 한 중요한 문학적 장르(Genre)가 되었다. 기독교 신앙교육서와 관련하여 최고의 정점에 이른 신앙교육서-문예부흥(Katechismus-Renaissance)의 시대를 연 것이다.<sup>26)</sup> 물론, 이러한 신앙교육서에 대한 관심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중세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한 실례로, 왈도파(Waldenser)와 보헤미안 형제회(Böhmischer Brüder)에서 발생한 신앙교육서들은 중세 후반에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적인 사상을 담고 있는 중요한 신앙문서들이라고 할 수 있다.<sup>27)</sup> 존 위클리프(John Wiclif)와 얀 후스(Jan Hus) 같은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의 비판적인 시각을 계승하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은 신앙교육을 위

25) Artikel 1537, 127: “Als Gegenmassnahme schlagen wir nun eine kurze und leichtverstaendliche Zusammenfassung des christlichen Glauben vor, die alle Kinder lernen sollen. Zu bestimmten Zeiten im Jahr sollen sie dann vor die Pfarrer kommen, um befragt und geprueft zu werden und weitere Erklarungen zu erhalten, den Faehigkeiten jedes Einzelnen angemessen, bis man sie als genuegend unterrichtet ansieht. Es ist somit an euch, den Eltern zu befehlen, Muehe und Sorgfalt darauf zu werwenden, dass ihre Kinder diese Zusammenfassung lernen und zur angeordneten Zeit vor den Pfarrer erscheinen.”

26) Hubert Filser, Die literarische Gattung ‘Katechismus’ vor Petrus Canisius, in: *Der Grosse Katechismus*, ins Deutsche Uebersetzt und kommentiert von Hurbert Filser und Setphan Leingruber (Jusuitica Bd. 6), Regensburg 2003, 26.

27) Gerhard von Zezschwitz, Die Katechismen der Waldenser und Böhmischen Brüder als Documente ihres wechselseitigen Lehraustausches. Kritische Textausgabe mit kirchen- und literargeschichtlichen Untersuchungen, Erlangen 1863, 4.

한 신앙교육서의 관심을 극대화시켰는데, 그들은 종교개혁 사상을 그 신앙교육서에 깊이 풍성하게 담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sup>28)</sup> 교황주의 신앙과 구별되는 종교개혁 신앙을 새롭게 정립하도록 하기 위한 신앙교육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매체로 인식되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래로 신앙교육서는 교파적인 기초교육을 위한 문서로도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는 1529년 루터와 쾰링겐 사이 성만찬론 합의에 대한 실패로 갈라진 루터파 교회(Lutherische Kirche)와 개혁파 교회(Reformierte Kirche)의 논쟁 안에서 그리고 개신교 견제를 위한 로마 카톨릭 교회(Römisch-katholische Kirche)에 의해 시도된 반종교개혁(Gegenreformation)의 흐름 속에서 그 절정에 도달했다. 그리고 급진적인 종교개혁을 외쳤던 제세레파 교회(Täuferische Kirche)와 중도의 길(Via Media)을 표방했던 영국 교회(Anglikanische Kirche) 안에서도 신앙교육서에 대한 관심은 매우 극대화되었다.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평화협정(Augsburger Religionsfrieden) 때 공식화된 신앙교과화과정(Konfessionalisierung) 이전부터 이미 다양한 신앙고백적인 신앙교육서들의 내용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발전되었는데, 즉 신앙에 관한 다양한 질문의 답변이 신자들에게 그들이 속해 있는 교파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제시되었다. 각 교파나 지역의 고유한 신학적 입장과 관련하여, 성례에 대한 이해 속에서 그리고 교회법의 규정 안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특별히 개신교 내에서 각 교파의 신학적 독특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억되어야 한다. 이미 초대교회부터 계승되어 온 사도적인 가르침에 근거한 정통신앙의 내용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것이 기억될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참된 경전을 박해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순수한 교리의 회복을 위해 결과적으로 교회의 분리를 정당화했지만, 그러나 개신교 내에서 교파적인 분열이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교회의 단일성과 공교회성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sup>29)</sup>

특별히, 매우 흥미롭게 기억되어야 할 사실이 있다면, 신앙교육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여러 나라들에서 자국어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종교적 지식이 없는 성인들과 어린이들의 교리교육을 위해서 쓰여진 신앙교육서는 거의 대부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국어로 쓰여 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신앙교육서는 종교개혁 시대의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신앙매체 중에 한 종류였다. 어린이, 청소년, 초신자 성인의 교리교육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내용으로 작성되어 유럽의 모든 개신교 안에서 유용하게 활용된 기독교 신앙문서였던 신앙교육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출판되었다.<sup>30)</sup>

28) Sang-Bong Park, Heinrich Bullingers katechetische Werke, Inaugural - Dissertation zur Erlangung der Doktorwürde der Theologischen Fakultät Zürich, 2011, 19.

29) Emidio Campi, Calvin, the Swiss Reformed Churches, and the European Reformation, in: *Calvin and His Influence 1509-2009*, eds., Irena Backus and Philip Benedic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119-43.

30) 종교개혁 시대에 신앙고백(서)과 분리될 수 없는 신앙교육서들은 다양한 제목들을 가지고 있었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교육서는 일반적으로 사도신조, 십계명, 주기도문, 성례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다. 물론, 의뢰자 혹은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고유한 신학적이고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크게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았다. 또한, 각 저자들이 서로의 것들을 참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적인 형식에 있어서 신앙교육서는 매우 다양하게 기술되었는데, 그 내용과 구조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한 것을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든지 신앙교육서는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를 각 주제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목적과 관련하여 문답식과 해설식으로 구별된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신앙교육서를 저술할 때 교육대상자의 연령과 지적인 수용능력에 따른 교육효과를 고려했다. 불링거가 《기독교 가정》 안에서 밝힌 내용이 참고 될 수 있을 것이다<sup>31)</sup>: “어린이가 진지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시작 나이에 대해 일부사람들은 5살로 규정하였고, 다른 일부사람들은 반대로 7살로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모두가 동일한 이해능력을 가지고 있기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일부에게는 집중적으로 가르쳐져야 하며, 다른 일부에게는 어려운 것 없이 천천히 가르쳐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가 교리교육을 규정된 나이에 근거하여 시도하기 보다는, 오히려 잘 살펴서 확인된 이해의 상태에 따라서 시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부모들이 떠맡아야 할 교리교육은 한 유일한 목적에 도달해야 하는데, 즉 아이들은 정당하고, 신앙적이고, 경건하고 그리고 성실한 하나님의 종들과 정직한 사람들로 길어져야 한다. 그 때문에 어린이들은 하나님께 경건한 자들의 공동체적인 기도와 함께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다: 독일어로는 Katechismus, Enchiridion, Lehrtafel, Bricht, Summa, Fragstueck, Unterweisung, Erklarung 등으로, 라틴어로는 Catechesis, Catechismus, Compendium, Doctrina, Examen, Elementa, Explanatio, Institutio 등으로 쓰여졌다. (Cf. Matthias Buschkül (Hg.), Katechismus der Welt – Weltkatechismus, 500 Jahre Geschichte des Katechismus. Ausstellungskatalog, Eichstätt 1993, 41f.)

31) Heinrich Bullinger, Der christliche Ehestand, in: *Heinrich Bullinger Schriften*, hg. von Emidio Campi, Detlef Roth & Peter Stotz, Bd. I, Zürich 2004, 549f: “Was das Alter betrifft, in dem man anfangen soll, die Kinder ernsthaft zu unterweisen, meinen einige, das fuenfte, andere hingegen, das siebte Altersjahr sei dafuer geeignet. Da die Kinder jedoch nicht alle die gleiche Verstandeskraft haben, einige scharfsinnig sind, andere aber eine schwerfaellige, langsame Auffassungsgabe haben, ist es am besten, wenn sich die Eltern nicht nach dem vorgeschriebenen Alter richten, sondern nach der Beschaffenheit des Verstandes, den sie bei ihren Kindern vorfinden. Die Unterweisung nun, der sie unterzogen warden, soll einzig und allein zum Ziel haben, gerechte, glaeubige, gottesfuerchtige und aufrichtige Diener Gottes und rechtschaffene Leute aus ihnen zu machen. Deshalb soll man sie lehren zu erkennen, was sie von Gott mit dem allen gemeinsamen Gebet des Vaterunser bitten. Man soll ihnen ein angemessenes Verstaendnis der Gebote Gottes und vorab der Artikel des christlichen Glaubens beibringen, den sie bisher nur mit Worten bekannt und fehlerfrei auszusprechen gelernt haben. Man soll sie auch lehren, warum sie getauft worden sind und was die Taufe ist und was man im und mit dem Abendmahl des Herrn ausdrueckt und vollzieht. Mit diesen Unterweisungen soll man fortfahren, bis sie zwölf Jahre alt sind und auch noch laenger, damit ihnen diese Punkte gut und nachdruecklich eingepraegt werden. Anspruchsvolle und spitzfindige Fragen und Lufthaschereien soll man ihnen nicht nahe bringen, sondern nur die reine, einfache Wahrheit und das, was ihnen zu wissen und zu glauben notwendig und nuetzlich ist. Man soll sich zudem davor hueten, zu viel von ihnen zu verlangen, sie zu ueberfordern und mit Lehren zu ueberschuetten. ... Mach sie nicht durch Strenge und eigene Unzufriedenheit des Lernens ueberdrueessig.”

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지금까지는 언어로만 고백하고 또 실수 없이 낭독하는 것에 대해서만 배웠던 믿음의 조항들(사도신경)이 가르쳐야 한다. 왜 그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으며, 세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만찬 안에서(과 함께) 무엇이 가르쳐지고 강조되어야 하는가를 알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교리교육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이 주제들의 내용들이 분명하게 각인되도록, 그들이 12세 나이가 될 때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 가르쳐야 한다. 까다롭고 특별한 질문들이나 이해하기 힘든 주제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지는 것은 좋지 않고, 오히려 명료하고 단순한 진리와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신앙지식이 가르쳐지는 것이 좋다. 하지만 가르치는 자는 어린이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고, 지나친 부담감을 주어서도 안 되며, 또한 가르친 내용들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어린 아이들이 학습의 엄격함과 불만족을 통하여 질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종교개혁 시대에 신앙교육서는 교회 안에서 설교되고, 학교에서 가르쳐지며 그리고 가정에서 읽혀졌다.<sup>32)</sup> 신앙지식이 없는 성인들과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sup>33)</sup> ‘규범이 되는 규범(norma normans)’으로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의 체계적 진술인 신앙과 행위에 관한 ‘규범화된 규범(norma normata)’으로서 상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앙고백(교리)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신앙매체였다. 개혁된 교회를 유지·보존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 4.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교육 목적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개신교가 분리된 이래로 종교개혁자들은 사도신경의 한 조항인 “거룩한 공(보편)교회를 믿사오며(credo ecclesiam catholicam)”를 매우 신중하게 이해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황의 추종자들로부터 공교회를 떠났으며, 기독교 신앙을 버린 이단이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교회-교리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교회’라는 용어는 신약성경 속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어원적으로 ‘보편적인’, ‘모든 것을 포괄하는’ 혹은 ‘전체를 다루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때는 약 110년 경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Ignatius of Antioch)가 쓴 《서버나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확인된다. 여기에서 ‘공교회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바와 같이 온전한 상태의 교회, 즉 완전한 교회를 나타나기 위해 사용된 용어였음을 알 수 있다.<sup>34)</sup> 그리고 이후에 카르타고의 키프리안(Cyprian of Carthage)이 쓴 《공교회의 단일성에 관하여》에서

32) 이남규, 팔츠(하이델베르그) 교회와 신앙교육, 『노르마 노르마타』, 김병훈 편집, 합동대학원출판부(2015), 216.

33) 안상혁, 제네바 교회와 신앙교육, 『노르마 노르마타』, 김병훈 편집, 합동대학원출판부(2015), 46.

34) Ignatius of Antioch, Letter to the Smyrnaeans 8:2, in: *The Apostolic Fathers*, ed. Bar Ehrman, vol.1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304-305.

‘공교회성’을 노바티안(Novatian)의 ‘이단적인 것’ 혹은 ‘분리적인 것’과 대립되는 ‘정통적인(orthodox)’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발전시켰다.<sup>35)</sup> 그래서 어거스틴은 《참종교에 관하여》에서 이단들과 구별하여 “카톨릭 교회를 보편적인 것이라는 말로 부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sup>36)</sup>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교회(ecclesia catholica)’는 ‘이단들’이나 ‘분리주의자들’의 모임과 구별된 모든 일반적인 교회들의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종교개혁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입장이다.<sup>37)</sup> 구체적으로 ‘공교회’는 넓은 의미에서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믿음 그리고 한 세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한 교회요(엡 4:4-6), 그분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한 의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신자들이 서로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에서 한 몸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과 관련하여 교회가 분리된 것은 공교회성을 무너뜨리는 초대교회에서 발생한 ‘분리나 이단의 성격’이 아니라, 오히려 지상에 세워진 불안정한 교회가 더 온전한 교회를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sup>38)</sup> 이 공교회는 성경 안에 계시된 진리 전체를 전적으로 고수하는 것에서 그리고 모든 시대를 통하여, 모든 장소에서 또 모든 민족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모아진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확인되는데,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으로부터 성경이 말하는 본래적인 종교를 회복했기 때문이다. 말씀의 선포, 성례의 시행 그리고 권징의 집행에 대한 교회의 표지가 인간의 부패성으로 인하여 흐려지지 않고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sup>39)</sup>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러한 참된 교회의 표지에서 너무 멀어졌다고 규정된 것이다. 참된 교회의 표지가 사라진 교회에서는 더 이상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없다.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셔서 교회가 오직 그분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세워지도록 하셨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sup>40)</sup> 종교개혁자들의 관심은 철저히 전체 성경에 근거한 바른 교리 위에 세워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있었다.

35) 참조: Thascius Caecilius Cyprianus, in: *Unitas in Latin antiquity : four centuries of continuity*, ed. Erik Thaddeus Walters, ( Frankfurt, M.; Berlin; Bern; Bruxelles; New York, NY; Oxford; Wien, Lang, 2011), 113-133.

36) Aurelius Augustinus, De vera religione, in: *Augustinus Opera*, Bd.68, hg. von Josef Lössl, (Schöningh, Paderborn 2007), 128: “..., Catholicam nihil aliud quam Catholicam vocant, ...”

37) 종교개혁자들의 공교회성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다음의 저술을 참고할 수 있다: The catholicity of the Reformation, eds. Carl E. Braaten and Robert W. Jenson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96).

38) 참조: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 개요』, 원광연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2004), 652-654.

39)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 교회의 표지를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시행으로 이해한 것이 사실이지만, 특별히 미터 마터 버미글리는 교회의 표지에 권징의 집행도 포함시켜다. (참조: Robert M. Kingdon, "Peter Vermigli and the Marks of the True Church," in: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Church History: Essays Presented to George Huntston Williams*, eds. F. Forrester Church & Timothy George (Leiden: Brill, 1979), 198-214.)

40) 캠피, 스위스 종교개혁: 쾰링글리·베르밀리·볼링거, 134.

이러한 공교회적인 기반 위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선지자적이고 사도적인 가르침에 근거한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고, 무엇보다도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그 신앙의 유산을 보존시키기 위해 신앙교육서를 통한 신앙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것이다. 더 바른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 속에서 몇몇 신학적인 주제들을 각 자의 고유한 시각으로 규정하고 서로가 첨예하게 논쟁하면서 결과적으로 개신교 내에 교파적인 분열이 발생되었지만, 그러나 모든 종교개혁적인 교회는 신앙교육을 통해서 오직 성경에 근거한 정통신앙을 회복시키고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시 교회들은 신앙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타락이나 부패의 요소들을 경계하면서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하나님의 진리, 사랑,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바른 신앙정신 위에서 있는 기독교가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신앙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시대의 악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윤리적인 모범을 보이며 어떻게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으로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신앙적인 고유성과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교회가 선지자적인 소명을 통해서 시대의 악과 불의에 저항하며 사회적인 윤리나 공의와 관련된 인간의 인권적인 내용이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길을 제시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교육은 신자들의 성숙을 위해 매우 유용한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시민사회의 유익을 위해서도 매우 크게 기여한 도구였다.<sup>41)</sup> 즉, 성경 교리의 배움은 개별 신자에게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기독교적인 품위를 가진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했으며, 한 교회의 구성원이자 한 사회의 시민인 신자들의 공동체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교회, 가정, 국가를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을 의미했다.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신앙교육서와 함께 신앙교육에 관심을 가진 것은 한 세대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넘어 굳건히 서 있는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 가장 실천적인 청사진을 그려낸 것이었다. 물론, 그 그림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16세기 당시 교회 앞에 놓인 신앙적이고 시대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는 방식이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당연히,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의도된 신앙교육은 교회와 신자들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종교개혁이 당시와 그 이후의 시대에서도 그 힘을 잃지 않도록 하는 지지기반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한 것이다.

## 결론

로마 카톨릭 교회와 분리된 이래로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한 가지는 ‘개혁된 교회’의 안정과 지속적 보존이었다. 종교개혁 사상이 로마 카톨릭

41) Emidio Campi, Bullingers Rechts- und Staatdenken, in: *Evangelische Theologie*, 64. Jahrgang, Gütersloh 2004, 123.



교회의 전통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과 함께, 그 사상이 성경적으로 옳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새롭게 탄생된 교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된 교회가 교회-교리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정통교회’로써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새롭게 세워진 개신교(Protestant)를 초대교회 시대의 이단적 개념을 가진 도나투스주의 같은 ‘분파적 교회’로 인식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한 것이다.<sup>42)</sup> 그 대신에 그들은 개혁된 교회를 ‘단일하며, 거룩하며, 공교회적이며, 사도적인 교회(una, sancta, catholica et apostolica ecclesia)’로 규정했다.<sup>43)</sup> 종교개혁 사상이 몇몇 사람들에게 의해서 주장된 자의적 가르침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적인 가르침에 근거하여 지상에 세워진 교회를 위한 정통신앙의 내용임을 각인시킨 것이다. 1529년 루터와 쾰빙글리가 말부르크(Malburg) 종교회의 때 성만찬론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함으로 개신교가 루터파 교회와 개혁파 교회로 분리되어 교파주의를 등장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신학과 신앙고백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사도적인 가르침에 근거한 정통신앙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의 신학적인 표명이 철저하게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에 근거하여 초대교회로부터 연속된 내용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초대교회부터 계승된 신앙교육서를 통한 신앙교육은 종교개혁자들에게 매우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종교개혁이 남긴 최고의 신앙유산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하다. 종교개혁자들이 바른 신앙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전의 시대보다도 더욱 발전시킨 교회의 도구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천적인 열매로부터 로마 카톨릭 신자들과 선명히 구별되는 고유한 개신교적인 신앙과 삶의 풍경이 등장했다. 특별히, 개혁파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을 드러내는 삶의 체계가 규범화된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을 교회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인생의 모든 국면에 적용시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16세기 종교개혁 이래로 개혁파 교회는 신앙교육을 통해서 교리적인 체계를 세우는 것을 넘어서 신자들로 하여금 그 교리에 근거하여 기독교적인 안목과 세계관에도 관심을 갖게 한 것이 사실이다. 점차적으로 가정과 교회의 영역을 넘어서 학문, 예술, 과학, 경제, 사회, 국가 등의 다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때, 한국 교회는 오늘날 당면한 신앙과 교회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종교개혁의 유산으로 남긴 신앙교육서를 통한 신앙교육에 대한 회복이 절실하

42) Heinrich Bullinger, Confessio Helvetica posterior, in: *Reformierte Bekenntnisschriften*, Bd. 2/2 (1562-1569), Hg. Andreas Muelling & Peter Opitz, Neukirchener 2009, XVII.

43) 특별히, 루터의 종교개혁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다음의 글들을 참고할 수 있다: Dorothea Wendebourg, “Kirche,” in: *Luther Handbuch*, ed. Albrecht Beutel (Tübingen: Mohr Siebeck, 2005), 403-414; Athina Lexutt, “Verbum Dei iudex: Melancthons Kirchenverständnis,” in: *Konfrontation und Dialog: Philipp Melancthons Beitrag zu einer ökumenischen Hermeneutik*, (Leipzig: Evangelischer Verlags-Anstalt 2006), 27-44.

다. 단순히, 성경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전체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한 기독교적인 인격과 삶의 체계를 갖도록 하는 신앙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성화의 삶은 참된 교회의 한 표지인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경청되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다. 이러한 면에서 신앙교육은 바른 말씀의 선포에 대한 한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다. 의심의 여지없이, 교회의 위기를 가져오는 한 직접적인 원인은 신앙교육의 부재와 관련이 있다. 바른 교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무관심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다양한 신앙적인 문제들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양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신앙교육의 무관심은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한 증거이기도 하다. 교회의 타락을 부추기는 한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바른 신앙교육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로 하여금 “어떤 인간 됨(being)”에 이르도록 한다. 인격과 삶에 있어서 분명한 성경적인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인적인 인간상을 종교개혁자들이 신앙교육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